통일신보

무 소 속 대 변 지

제3호 【루계 제2577호】

주체109
(2020)년 1월
18일
토요일
음력 12월 24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부닥치는 난관을 제힘으로 뚫고나가며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정면돌파전을 벌릴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였다.

공화국에서 천명된 정면돌파전사상은 전진도상에 직면한 장애와 난관들을 전면적으로 심도있게 분석평가한데 기초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진로를 뚜렷이 밝혀주는 가장 정당한 사상으로서 온 나라 인민의 전폭적인 지지찬동을 받고있다.

공화국각지에서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한 궐기모임들이 련일 벌어지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기관들에서 정면돌파전으로 승리의 활로를 열기 위한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고있는것은 이 로선이 얼마나 시기적절하고 현명한 로선인가를 웅변해주는것이다.

적대세력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 산물인 제재압살책동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되고있다. 적대세력들의 제재압살책동이 날로 가중되고있는 조건에서 공화국인민들이 가만히 앉아 제재가 해제되기를 기다릴수는 없는것이다. 하기에 공화국은 제재해제를 기다리는것이 아니라 정면돌파전의 길을 택한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적대세력들의 제재압살소동에 언제나 맞받아나아가면서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온 자주성이 강하고 자력갱생의 정신이 온 나라에 차넘치는 공화국만이 택할수 있는 정의와 승리의 길이다.

공화국이 벌리는 정면돌파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것이 이 나라 인민의 가슴마다에 억척같이 간직되여있는 믿음이다.

정면돌파전을 벌릴데 대한 사상에는 자주적근위병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생명으로 여기고 끝까지 지켜나가려는 공화국인민들의 드높은 민족자주, 민족자존의 정신과 의지가 반영되여있다.

오랜 세월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속에서 살아오고있는 공화국인민들이기에 이제는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는 정신력의 강자들로 준비되였으며 그 어떤 제재광풍도 자력갱생으로 쳐갈기고 자기의 존엄과 행복을 지키겠다는 신념과 의지를 체질화하였다.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적대세력들의 제재해제따위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겠다는것이 바로 공화국의 민심이다.

불패의 일심단결과 무적의 군력, 자립경제의 막강한 저력도 정면돌파전의 승리를 내다보게 하는 확신성있는 근거들이다.

공화국이 가장 혹독한 제재봉쇄를 이겨내야 했던 지난해에도 국방력강화와 경제건설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한것은 적대세력들이 아무리 집요하게 발악해도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아갈수 있고 자기식으로 발전과 번영의 길을 열어나갈수 있다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는것이다.

공화국의 정면돌파전사상은 세계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정면돌파전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나가고있는 공화국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다.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 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는 사회주의조선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고 조선혁명과 세계혁명발전을 크게 추동한 의의있는 계기였다고 언급하면서 《정면돌파사상은 조선반도정세와 세계정치구도를 명확하게 분석하신 김정은동지께서만 내놓으실수 있는 가장 정당한 사상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절세위인의 탁월한 령도가 있고 일심단결되고 자력갱생을 체질화한 애국적인민이 있으며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 과학기술인재의 대부대가 있기에 공화국은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도 반드시 승리를 안아오고야말것이다.

안성복

더 좋은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조선

국제사회계가 격찬

자력부강의 기치높이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불멸의 대강이 제시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를 국제사회계가 적극 지지하고있다.

흐르바쯔까사회로동당 국제부장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가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해 열렬히 축하한다, 조선이 불리한 조건속에서도 여러 분야에 걸쳐 성과를 거두고있는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리라고 믿는다고 말하였다.

쓰르비아공산당 국제비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였다.

이 구호에는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와 고립압살책동을 과감히 짓부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려는 조선인민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의지가 반영되여있다.

나이제리아조선친선협회는 이렇게 성명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는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리익을 수호하며 부닥친 난관과 도전들을 박차고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이 토의되였다.

김정은각하께서는 전원회의에서 현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면돌파전을 벌릴데 대한 혁명적로선을 천명하시였다.

우리는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결정들이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칠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라고 인정하면서 그 관철을 위해 떨쳐나선 조선인민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체스꼬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 공동성명은 대조선제재가 지속되고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우리 공화국을 질식시키고 말살하려는 미국의 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은 자력갱생을 보검으로 틀어쥐고 자기 발전을 이룩해나가고있다.

조선의 막강한 전쟁억제력은 국가의 안전과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믿음직한 담보이다.

자체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조선의 립장을 지지한다.

김정은각하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조선인민은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할것이다.

인디아의 오우션 뉴스 포인트신문사 주필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이번 전원회의 보고에서 조선로동당과 인민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온갖 도전과 난관을 단호히 물리치고 자력부흥의 대업을 앞당겨 실현해나갈데 대한 그이의 탁월한 정면돌파사상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하였다.

레바논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는 이렇게 피력하였다.

김정은령도자의 지도밑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는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한 력사적인 회의였다.

김정은령도자를 높이 모신 조선은 더 좋은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주체의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할것이며 반드시 최후승리를 안아오고야말것이다.

파키스탄자력갱생연구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2019년은 조선인민이 자위적국방력을 성공적으로 강화한 의의깊은 해였다.

이것은 조선민족사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며 또한 세계평화를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있어서 큰 경사로 되고있다.

조선인민은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제재와 압박을 물리치며 모든 분야에서 보다 눈부신 기적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로씨야 띤다시 주체사상연구협회 위원장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과 조선인민군을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시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2020년은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일심단결되여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외부반동세력들의 도발은 가장 진보적인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조선인민의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다.

아랍사회부흥당 부총비서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류의 평화와 정의의 위업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 조선인민은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진보와 번영의 행로를 줄기차게 이어나갈것이다고 격찬하였다.

프랑스혁명적공산당 총비서도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김정은동지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라고 하면서 조선인민은 새해에도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보다 높은 단계의 승리를 안아올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위원장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훌륭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조선을 압살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부당한 책동을 폭로하시고 국방력과 전쟁억제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전체 조선인민은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강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위대한 과업수행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떨쳐갈것이다.

본사기자

진정한 인민의 나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며 날로 비약하는 공화국의 현실을 직접 목격한 외국인들속에서 부러움과 찬탄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꽁고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은 《방문기간 목격한 모든것은 상상을 초월하였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에서 조선인민은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살고있다.

조선의 현실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셔야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고 거창한 전변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서방의 어용출판보도물들은 사회주의조선에 대한 외곡된 선전을 하고있다. 그것이 허위날조라는것을 조선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직접 확인할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싱가포르인터콘살팅유한회사 사장은 《조선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조선에서는 무료교육, 무상치료 등 국가적혜택이 인민대중에게 돌려지고있다. 이를 통하여 사회주의조선은 인민의 참된 삶이 꽃펴나는 품이라고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다.

조선인민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자기의 역할을 다해가고있다.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하며 그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륭성번영할것이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며 그이의 두리에 굳게 단결된 인민이다.

조선은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몇해사이에 몰라보게 변모되였다. 훌륭한 거리들과 건축물들, 활기에 넘친 조선인민의 모습은 볼수록 경탄과 놀라움을 자아낸다. 열렬한 애국주의정신과 무한한 헌신성을 지닌 슬기로운 인민이기에 오늘 신심과 락관에 넘쳐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것이다.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조선이 더욱 부강발전하리라는것을 확신한다.》라고 강조하였다.

공화국을 방문하여 여러곳을 돌아본 외국의 한 인사는 《조선방문은 서방동료들과 나의 머리속에 들어찼던 온갖 잡생각을 뒤집어엎고 나의 생활관을 변화시킨 놀라운 체험으로 되였다.

아마 평양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도시일것이다. 사람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잘 입고 다닌다. 서방통신들의 선전으로 굳어진 우리의 생각처럼 남성들과 녀성들이 모두 똑같은 옷을 입은것이 아니였다.

서방에서 떠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이야기는 완전한 거짓이다. 조선은 인류의 리상사회이며 인류가 꿈속에서나 그려볼 참으로 부러운 나라이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조선에 대한 진보적 인류의 감탄의 목소리는 커다란 메아리가 되여 끊없이 울려퍼지고있다.

본사기자 황금숙

조국소식

원산김치공장 준공식 진행

원산김치공장이 새로 건설되였다.

공장에는 통배추김치, 양배추김치, 깍두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김치를 생산할수 있게 절임실, 가공실, 종합조종실 등이 그쯘하게 갖추어지고 생산공정의 무균화, 무진화, 흐름선화가 실현되여있다.

항구문화도시에 우리 민족의 전통음식이며 건강식품인 김치를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는 현대적인 김치공장이 일떠섬으로써 도내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할 또 하나의 물질적토대가 마련되였다.

원산김치공장 준공식이 14일에 진행되였다.

박정남 강원도당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공장 일군들, 종업원들, 원산시안의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채일룡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정히 받들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각 도들에 현대적인 김치공장을 일떠세울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공장종업원들이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지니고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김치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정신을 심장에 새기고 정면돌파전으로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또다시 큰 걸음을 내짚으며 전진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김치공장을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이역에서도 언제나 백두산을 마음에 안고

백두산을 마음속에 안고사는것이 어찌 이들뿐이랴. 일본을 비롯하여 해외에서 사는 동포들의 가슴마다에 언제나 소중히 간직되여있는 백두산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직지휘하신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의 주요 전장이였던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사는 동포들을 비롯하여 재중동포들도 백두산하늘아래 우리 산다며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부심을 저마다 터치고있다.

어느해인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은 민족의 성산이며 영광스러운 민족자주위업이 개척되고 그 계승의 만년담보가 마련된 백두산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답사를 진행하였다. 그들은 추위가 풀리지 않은 2월에 붉은기를 펄펄 휘날리며 사납게 휘몰아치는 설한풍을 맞받아 행군하면서 항일선렬들이 헤쳐간 혈전의 길, 혹한의 길들을 걷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얼마나 간고한 시련을 헤치며 조국해방의 대업을 이룩하였는가를 직접 체득하였다. 답사는 예견했던것처럼 처음부터 힘에 겨웠으나 답사과정을 통하여 말로만 들어왔을뿐 아직 체험해보지 못한 동지애의 세계가 얼마나 숭고한것인가를 직접 깨달을수 있게 한 중요한 계기로도 되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10여일간에 걸친 답사행군기간 동포들은 백두산혁명전적지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백두의 혁명정신을 자신들의 세계관으로 확고히 간직하게 되였다.

참으로 항일혁명의 영광스러운 전통이 빛나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고향집이 자리잡고있는 백두산은 북과 남, 해외에 사는 모든 조선사람들이 신성히 떠받드는 조종의 산이며 한생토록 영원히 그리고 《그 언제나 가고싶은 마음의 고향, 꿈속에도 안겨보는 장군님고향, 백두산은 조선사람모두의 고향입니다.》

이것은 학생소년들의 2020년 설맞이공연 《백두산 축복안고 설눈아 내려라》에 참가하여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이 터친 심장의 목소리이다.

바다건너 찬바람부는 이역에서 살면서도 얼마나 백두산을 그리며 살고있는가는 이 공연 하나를 통해서도 뜨겁게 느낄수 있다.

유치원시절 크레용으로 그려보며 꿈 나래펴고 오르던 백두산, 고급부 형님, 누나들이 떠다준 천지의 맑은 물을 마시며 조선사람의 긍지를 키워온 백두산, 이러한 백두산을 마음속에 안고살았기에 사나운 비바람도 굴함없이 맞받아나간다는 그들의 진실한 고백은 공연을 관람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민족의 조종의 산인 백두산을 경건히 우러르게 하고 모두의 마음을 백두산으로 더욱 달려가게 하였다.

무대우에서 이역의 동포어린이들은 이렇게 웨치였다.

《우리는 뵈웠습니다. 천리준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르신 원수님의 그 영상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바람세찬 이역땅에서 민족교육을 지켜가는 우리 선생님들을 영광의 대회장으로 불러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원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을, 우리는 새겼습니다. 원수님 안겨주신 백두의 그 넋과 기상을, 조선사람의 긍지와 자랑을, 아버지원수님. 우리는 영원히 백두산을 안고살며 백두의 피줄기, 민족의 피줄기를 꿋꿋이 이어가겠습니다.》

본사기자 한일혁

인민의 리상과 꿈을 현실로 꽃피우시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 결정관철에 전체 인민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원회의에서 전대미문의 준엄한 난국을 정면돌파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리익을 끝까지 수호하며 자력부강의 기치높이 부강조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대강을 펼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원회의보고에서 고생과 투쟁이 없이는 위대한 승리를 가질수 없으며 혁명의 승리는 필연적이지만 그 어떤 장애도 곤난도 없이 성취되는것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한 정면돌파전을 강행해야 한다고, 정면돌파전은 우리 혁명의 당면임무로 보나 전망적인 요구로 보나 반드시 수행해야 할 시대적과제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만일 우리가 제재해제를 기다리며 자강력을 키우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지 않는다면 적들의 반동공세는 더욱 거세여질것이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자고 덤벼들것이라고, 우리가 자체의 위력을 강화하고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값진 재부들을 더 많이 창조할수록 적들은 더욱더 커다란 고민에 빠지게 될것이며 사회주의승리의 날은 그만큼 앞당겨질것이라고 하시였다.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값진 재부와 사회주의승리의 날!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재부를 마련하시기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걷고걸으신 현지지도의 자욱자욱이 뜨겁게 되새겨진다.

그 길에는 비내리는 건설장의 감탕길, 찬바람 불어치는 공장의 구내길도 있었고 한몸의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서슴없이 나서신 조국수호의 전선길과 군력강화를 위한 생눈길도 있었다.

지금도 사람들은 세해전 새해의 첫아침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잊지 못하고있다.

그이께서는 또 한해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서고보니 나를 굳게 믿어주고 한마음한뜻으로 열렬히 지지해주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하면 신성히 더 높이 떠받들수 있겠는가 하는 근심으로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언제나 늘 마음뿐이였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속에 지난 한해를 보냈는데 올해에는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할 결심을 가다듬게 된다고 하시였다.

인민의 리상과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사회주의강국의 래일을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불철주야 헌신의 장정을 이어가시였고 그 길에서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많은 훌륭한 재부들이 마련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심과 구상에 따라 려명거리건설과 삼지연시건설,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과 같은 거창한 창조대전이 벌어졌다.

그이의 탁월한 지략과 강인담대한 실천력으로 하여 막아서던 시련과 난관들이 산산이 부서져나갔으며 도처에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솟아올라 인민을 위한 문명의 화원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헌신의 무게만큼 조선의 힘이 강해졌으며 그이의 거룩한 발걸음따라 공화국이 전진하고 승리와 번영의 넓은 길이 열리였다.

하기에 사람들은 위대한 령도자의 헌신의 자욱마다에 일떠선 기적의 창조물들을 보면서 그이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령도자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친 공화국인민을 당할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일심단결의 위대한 힘으로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재부들을 더 많이 창조하는 공화국의 앞길은 언제나 승리와 영광으로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한길로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 손으로 앞길을 개척하며 발전하는것은 공화국의 생존방식이며 근본원칙이다.

자력부강, 자력번영은 공화국이 걸어온 전 로정에서 언제나 투쟁의 기치가 되고 비약의 원동력이 되여왔다.

조선인민이 지난 세기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고 새 조국건설과 전후복구건설, 사회주의건설에서도 눈부신 기적과 사변들을 안아올수 있은것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하여왔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나서는 승리의 방략들을 하나하나 다 밝혀주시였다.

정면돌파전으로 모든 난관을 뚫고나가자, 바로 이것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을 새겨안으며 공화국인민이 가슴마다에 깊이 간직한 불변의 신념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4월에 있은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동풍이 불어오든 서풍이 불어오든, 그 어떤 도전과 난관이 앞을 막아서든 우리 국가와 인민의 근본리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티끌만 한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을것이며 모든것을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해결해나가면서 우리 식,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갈것이라고 하시였다.

이런 철석의 신념을 지니신 원수님이시기에 인민의 행복을 위한 설계도를 펼치시면서도, 현대화의 동음울리는 공장들과 기적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 건설장들을 찾으시여서도 자력갱생의 기치가 더 힘있게 나붓기게 하시였다.

지난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돌아보시며 그처럼 방대한 대규모건설사업이 우리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것을 보며 커다란 고무를 받았다고, 이것은 결코 조건과 형편이 용이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힘, 자기의 피땀으로 진정한 행복과 훌륭한 미래를 창조해가려는 우리 인민의 억센 의지와 투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삼지연시와 양덕온천문화휴양지, 경성군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어랑천발전소 팔향언제우에 터져오른 자력부강의 련이은 승전고들에서 온 나라 인민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휘날려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림없는 의지의 빛나는 승리를 똑똑히 보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위대한 자주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자력으로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공화국인민의 힘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다.

항일대전의 나날 백두의 밀림에서 창조된 연길폭탄정신과 자력갱생의 고귀한 전통이 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기에 공화국인민들은 승리의 빛나는 력사를 줄기차게 이어가고있으며 밝아온 이 해의 첫 기슭에서부터 창조와 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가고있다.

고영식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시

승리의 시간은 우리의것이다

리철준

새해의 시간이 흐른다
천겹만겹의 시련과 난관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갈
도도한 기상이 넘치는 이 땅에
필승의 시간이 흐른다

적대세력은 비명을 질렀다
2019년말은
《완전한 북의 시간》이였다고
불안과 공포에 얼혼이 나갔던
고단한 그때를 표현했다

어찌 2019년뿐이랴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마치로
제재와 압박의 사슬을 끊어내치고
2020년에도
이해의 첫날부터 마감날까지
우리 승리의 시간을 새겨가리니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더더욱 강해지는 우리의 신념
원쑤들의 도전이 크면 클수록
더더욱 백배해지는 우리의 힘이기에
시간은 영원히 우리의것이다
우리의 신념과 의지대로 흘러간다

시시각각 분분초초
적대세력은 또다시 비명을 지르리라
2020년 한해가
완전한 조선의 시간이 되였다고

그렇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자
절망과 패배의 시간을 보내야 할 2020년
정의와 진리의 시간은 우리의것이다
승리의 시간은 조선의것이다!

승리는 더 큰 승리를 부른다

오늘도 그 여진은 좀처럼 가라앉지 못하고있다.

무한대의 우주공간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소식으로 메워지던 송년과 신년의 분기점에서 이제는 보름도 넘게 흘렀으나 국제보도계의 반향은 잦을줄 모른다.

《조선인민의 힘찬 진군에 새로운 활력을 부어준 력사적인 회의》, 《조선은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할것이다.》, 《최후승리는 조선인민에게 있다.》…

세계가 본 조선의 2019년

언제나 그러하였다. 조선이 더는 견디여내지 못할것이라고.

이런 랑설이 지난해에 더욱 란무한 가운데 적대세력들은 조선의 힘에도 한계가 그어질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2019년에 세계는 조선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며 무엇을 말하였는가.

《땅에서 솟아올랐나? 하늘에서 내려앉았나? 이렇게도 빨리 달라질수 있단 말인가.》, 《환상속의 그림인들 이보다 아름다울수 있는가. 꿈을 꾼들 이처럼 황홀한 꿈을 꿀수 있는가.》, 《은빛설경속에 키돋움하는 거리들은 세계유명도시들을 무색케 할 정도이다.》, 《비상히 독창적이면서도 원숙한 건축예술의 높은 경지를 보았다.》, 《장쾌하면서도 섬세하고 변화무쌍한 공간구성과 독특하고 세련된 조형미를 갖춘 건축예술의 걸작품들이다.》…

건축은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예술이라고 했다.

수천년전에 세워진 하나의 건축물을 통해서도 당대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의 전모를 파악할수 있을만큼 시대와 력사를 대표함에 있어서 건축만큼 위력한 언어가 없고 건축만큼 생동한 화폭은 없는것이다.

하지만 공화국의 건축물들이 세계의 시선을 모은것은 결코 건축예술의 신비함때문만이 아니였다.

한해전, 한달전과 격차를 이루는 천지개벽이 끈질긴 제재와 압살의 포위망속에서 일어난것으로 하여 조선을 보다 부각시킨다는것이였다.

공화국의 전원회의소식이 국제보도계의 지면과 화면을 가득 채운것은 무엇때문인가.

세계의 민심에 지울수 없는 여운을 남긴 2019년의 공화국의 모습을 통해 행성의 눈과 귀는 력력히 실감했던것이다.

한두번의 승리는 우연일수 있지만 그것이 줄곧 반복되면 필연이라는것을!

웬만한 나라 같으면 그런 시련을 겪는 경우 하나를 건설해놓고 맥이 진해 주저앉았으련만 조선에서는 백두산기슭에서 터져오른 만세소리가 북방의 동해기슭 중평과 어랑의 계곡을 거쳐 양덕땅에로 끝없이 메아리치니 외부세계의 시각으로 볼 때 그것은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였다.

제재와 봉쇄에 맞받아 나아가는 조선의 진짜대답은 훌륭한 건축물들만이 아니였다.

왕가물과 태풍의 변덕에도 례년에 없는 대풍으로 설레는 협동전야에, 사회주의바다향기 넘쳐나는 인민의 집집마다에 메아리쳐오는 복된 웃음소리였다.

지난해 평양의 대성백화점과 상품전람회장을 돌아본 외국인들의 심정은 어떠했는가.

《정말 깜짝 놀랐다. 여기에 있는 모든것들은 실로 현대적이며 멋있고 훌륭하다고밖에 달리는 말할수 없다.》, 《봄철에 와서 볼 때와 가을철에 와서 볼 때 또 다르다. 제재나 봉쇄와는 무관한듯 세계명품들과 당당히 견주는 국산품들이 상점들을 뒤덮고있는 현실에서 충격을 받았다.》

제재가 조선의 경제를 약화시켜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갈것이라는 예측을 뒤집어엎고 경제전문가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있을 때 행성을 거대한 충격으로 진감시키는 사변들이 연해연방 터져올랐다.

《북이 세계적으로도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을 정도의 무기개발속도를 보여주고있다. 미싸일강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일반적으로 새로운 탄도미싸일개발을 위해 10여차례이상의 시험발사를 진행하는데 북은 한두차례의 시험발사를 통해 새로운 주체무기들을 개발완성하였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북이 세계 그 어느 나라도 개발해본적이 없는 초대형방사포를 6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이동식발사대차까지 함께 개발한것이다.》, 《북의 기술개발속도는 전세계에 놀라움을 안겨줄만큼 참으로 빠르다.》…

이것은 지난해 선보인 주체병기들의 신비함에 대한 세계군사학계 평가의 일부이다.

하지만 기적중의 기적은 여기에만 있지 않다.

패권을 추구하는 렬강들의 치렬한 세력다툼의 틈바구니에 끼워 자립을 주장하던 주권국가들이 대국추종의 길로 방향타를 돌리는 현정세의 소용돌이속에서 평화수호의 힘을 막강하게 재운다는것은 수월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국방분야에 쓰일수 있다고 보아지는 모든것, 심지어 화장품생산에 쓰이는 원료마저도 《2중용도》라는 딱지를 붙여 공화국경내에 들어가지 못하게 각방으로 차단하는 속에서 억대의 재부, 과학기술력을 자랑하는 나라에서조차 엄두를 못내는 천변만화한 미중유의 사변들만을 련발하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다른 나라 같으면 제재앞에 주저앉거나 해제를 바라고 발이 닳도록 여기저기 찾아가겠지만 조선에서는 그런 기미조차 보이지 않지 않는가.

하거늘 혹독한 위기도 절호의 호기로 역전시키는 만능의 초고속개발창조력이야말로 신비하다고밖에는 달리 표현할수 없는, 풀지 못할 조선의 수수께끼라는것이 세계언론계의 일치한 평이다.

결국 세인의 조소거리로 된것은 2019년의 마지막시각까지 열성껏 풍구질하며 연출해온 적대세력들의 대조선제재소동이였다.

그 신비한 기적창조력은

례사로운 환경이 아닌 최악의 조건에서 이룩하는 진보와 비약에는 류다른 의미가 있고 비결이 있으며 음미해보게 되는 깊은 진리가 있는 법이다.

지난해 이 땅의 어느 일터에서나 창출된 기적의 이름들은 같지 않다.

그러나 하루하루의 전진이 값비싸면서도 고귀한 승리의 련속이였던 공화국의 2019년의 모습을 투시해보면 그것을 안아올린 뿌리는 하나, 자력갱생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지난해 정초에도 세계의 각광은 조선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그때 세계는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나가며 인재와 과학기술을 주되는 전략적자원, 무기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구절구절에 어떤 용암이 끓고있는지 예측할수 없었다.

흐르는 날과 달이 증명해주었다.

인민의 리상향으로 나날이 전변되고있는 이 나라의 어디서나 한목소리마냥 들려왔다.

《우리는 매번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과 비상한 창조세계에 탄복하면서 눈을 희우고 지혜를 터득하면서 걸음걸음 따라섰다. 매일 보는 우리들조차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천지개벽의 위대한 발기자, 위대한 설계가, 위대한 시공주는 바로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건설자들이 세계적수준의 표준산간도시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하는 숱한 경험과 기능을 배우고있다. 장차 온 나라를 삼지연시처럼 일떠세울 수천수만의 인재를 한꺼번에 키워내고있는것은 새시대 주체건축의 위대한 개척자, 위대한 스승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안아오실수 있는 거대한 기적이다.》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자들이 제일 힘든 첫걸음을 뗄 때에도, 그들에게 새로운 기준과 안목을 틔워주고 세계를 굽어보는 큰 심장과 불굴의 공격정신을 안겨주어야 할 때에도 건설장들을 찾으시여 놀라운 도약의 나래를 달아주시였다.

그 한량없는 믿음과 기대는 평범한 인민들의 심장에 하늘이 무너지겠으면 무너지라, 머리에 떠이고 서서라도 할 일을 다하고 불장을 다 보겠다는 배짱을 억척같이 심어주었고 그 담대한 배짱은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 거대한 승리를 안아왔다.

늘 자신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어려움과 난관을 잊게 해주는 정말 고마운 동지들이라고 경애하는 원수님 내세워주신 국방과학자들과 군수공업부문 로동자들의 가지가지의 위훈은 어떻게 태여났던가.

산악같은 파도가 요동치는 캄캄한 바다길을 몸소 단정의 조타를 잡으시고 한치한치 뚫고가시며 돌풍이 사납다고 배에서 뛰여내리면 자멸이다, 만리길을 왔다고 해도 도중에 멈춰서면 한발자국보다도 못하다고 하시며 불같이 심신을 가다듬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길우에서 강력한 주체탄들이 련이어 솟구쳐올랐다.

그 하나하나의 주체탄들은 공화국의 막강한 힘과 지위를 세계의 정상에 우뚝 올려세운 억척의 지레대였고 침략의 번개와 우뢰를 길들여 공화국의 안전을 수호한 피뢰침이였다.

하기에 지난해 4월전원회의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나갈데 대한 문제를 재천명하실 때 공화국의 인민들은 그 숭엄한 세계를 심장의 눈으로 읽었다.

자신들이 강해지는 유일한 선택은 자력갱생, 자신들이 발전하는 유일한 방식도 자력갱생이라는 억척의 의지가 백배해졌다. 무슨 일을 하든 세계에 도전하고 세계와 경쟁하며 세계를 따라앞서겠다는 야심만만한 배짱이 어디서나 놀라운 착상을 낳았고 인민이 덕을 보는 실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그것은 공화국에서 경쟁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된 각이한 분야의 전시회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질적측면에서 뚜렷한 도약을 일으키며 새라새롭게 출현한 명제품들과 더불어 자력갱생을 체질화한 과학기술인재의 지혜는 봉쇄할수도 제재할수도 없으며 기적은 자력갱생의 정신과 과학의 힘이 주는 필연이라는것을 유감없이 실증해주었다.

이런 문제에 초점을 돌려본다. 하다면 그 명제품개발의 주인은 누구였는가?

지난해 11월 전국화장품전시회에서 녀성들의 인기를 모은 신의주화장품공장을 실례로 든다.

공장에서는 각이한 기능성원료, 기능성화장품의 연구와 개발, 그것이 사람들의 피부에 주는 영향, 효과성검토 등에 이르는 모든 사업을 동시에 진행한다.

이 놀라운 과학기술성과를 내놓는 주인공들속에는 로동자발명가들도 있으니 이렇듯 발명과 착상, 학습과 탐구는 공화국의 현실로 되고있는것이다.

최근 세계적인 두뇌경쟁마당을 조선판으로 끓어번지게 한 제28차 세계기억력선수권대회도 자기의 두뇌로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려는 조선의 기상과 능력에 대한 뚜렷한 례증으로 되고있다.

결코 황금이 재부가 아니며 거대한 자력의 정신력, 이것이 최대자원이고 재부라는것을, 마를줄 모르는 샘처럼 무한히 솟구치는 그 힘이 있어 제재장벽과 압살의 광풍도 쳐갈기며 자기 개척로를 그 누구도 본따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식대로 열어나간다는것을 공화국의 인민들은 2019년의 값진 성과와 승리를 통하여 유감없이 보여준것이다.

결국 자력갱생, 이 한마디속에 공화국의 2019년의 모습이 있었다.

2019년에 공화국의 발전잠재력이 무엇으로 하여 무궁무진한가를 보여주었다면 그 자양분이 되고 전진의 기치가 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이였다.

공화국인민에게 있어서 자력갱생은 시대의 부름이기 전에 그이의 가장 열렬한 심장의 숨결에서부터 고동쳐온것이다.

세계가 본 2019년의 조선의 모습이자 자주와 정의의 기치이신 위대한 령도자의 기상이고 2019년의 기적이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특출한 령도실력의 승리인것이다.

* *

자력갱생의 기치따라 전진하고 승리해온 조선의 밝아온 새해 2020년은 정면돌파전의 뢰성으로부터 시작되였다.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한 정면돌파전을 강행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제재해제를 기다리며 자강력을 키우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지 않는다면 적들의 반동공세는 더욱 거세여질것이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자고 덤벼들것이다.

우리가 자체의 위력을 강화하고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값진 재부들을 더 많이 창조할수록 적들은 더욱더 커다란 고민에 빠지게 될것이며 사회주의승리의 날은 그만큼 앞당겨질것이다.…

온 행성에 찌렁찌렁 울려퍼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 보고의 구절구절들.

그것은 제재를 박차고 끝까지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한길로 가려는 조선의 힘찬 선언이고 자기의 힘으로 희망찬 미래를 기어이 앞당겨오고야말 철의 신념과 락관이 넘쳐나는 웅대한 승리의 설계도이다.

조선은 자력갱생의 궤도에서 추호도 벗어남이 없이 자기가 정한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신심과 락관에 넘쳐 2020년의 진군의 큰 보폭을 내짚었다.

온 나라가 전원회의정신에 탄복하고 찬동하며 그 결정관철을 위한 정면돌파전에 산악같이 일떠서 나아가고있다.

백두산악같은 그 억센 신념, 백두의 칼바람같은 굴할줄 모르는 정신과 의지를 그 누가 꺾을수 있겠는가.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휘날리며 령도자의 두리에 온 나라 인민이 굳게 뭉쳐 노도쳐 나아가는 그 장엄한 진군의 앞길을 천만산악인들, 천길 바다인들 막아설수 있겠는가.

조선은 이렇게 더 큰 걸음으로 나아가고 더 큰 승리의 래일을 마중가고있다.

본사기자 박영진

행복의 별천지에서 울리는 인민의 웃음소리

—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서 —

인민들의 문명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종합적인 온천치료봉사기지, 다기능화된 복합체육문화휴식기지로 일떠선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서 봉사가 시작되였다.

풍치수려한 산천과 현대적인 봉사시설들, 스키장, 승마공원 등이 훌륭한 조화를 이룬 휴양지의 모습은 볼수록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고있다.

웅근 하나의 도시와도 같이 들어앉은 산뜻하고 화려한 봉사건물들과 고급별장갈은 살림집들, 대봉정점에서 뻗어내린 스키주로를 비롯한 휴양지의 전경을 바라보며 휴양생들은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세상이 부러워하는 선진문명을 안겨주시려 양덕땅을 찾고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자욱자욱을 누구나 가슴뜨겁게 새겨안고있다.

흰눈을 떠인 푸른 소나무들이 무성한 온정계곡에 안개가 하얗게 피여오르는 새벽부터 휴양생들은 너도나도 달려나와 체조와 달리기를 하면서 자연의 정서를 한껏 체감하고있다.

채광시설을 훌륭히 갖춘 실내온천장을 비롯한 온천장들은 온천욕을 하는 사람들로 날마다 흥성이고있다.

온천의 치료효능을 더 높이기 위해 옥돌까지 깔아준 온천욕조들가운데는 물고기들이 피부를 깨끗하게 해주는 희귀한 욕조도 있어 휴양생들의 기쁨을 더해주고있다.

조선식지붕을 건듯 이고 온정봉으로 뻗어오른 외랑을 거쳐 야외온천장에 나서면 누구나 저도 모르게 탄성을 올리군 한다.

《소나무가지》우에 올라앉은 다락식온천탕과 별장식온천탕 등 소나무숲속에 구색이 맞게 들어앉은 여러 온천탕과 나무로 형상된 란간란주들은 한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방불케 한다.

푸르른 솔숲의 싱그러운 기운이 감도는 속에 흰눈덮인 소나무아래의 온천탕에 몸을 잠그고있는 사람들 모두가 한겨울에 여름과 겨울의 서정을 동시에 느껴보는 유별한 쾌감을 금치 못하고있다.

70～80℃의 온천수에 잠긴 구럭에서 삶은 탉알을 꺼내여 벽장에 있는 고급간장과 참깨, 소금 등의 조미료까지 곁들여 맛있게 들며 웃고떠드는 휴양생들의 흥겨운 모습은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의 이채로운 풍경이다.

산굽이를 감돌아 칠칠이 펼쳐진 전면유리창의 외랑, 추운 겨울에 미끄러질세라 난방관까지 설치된 보행통로에 깃든 사연들은 휴양생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주고있다.

스키주로들에서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칠새 없다.

눈뻐스의 동음이 경쾌하게 울리고 눈오토바이가 눈갈기를 날리는 풍경을 굽어보며 삭도를 타고 정점에 오른 사람들은 스키타기에 여념이 없다.

온 가족과 함께 눈썰매타기에 열을 올리는 근로자들의 얼굴마다에도 남다른 행복을 누리는 희열과 랑만이 한껏 어려있다.

탁구, 실내골프, 전자오락을 비롯한 다양한 체육문화생활도 사람들에게 지울수 없는 인상을 주고있다.

로동당시대 선경을 펼치며 솟아난 양덕온천문화휴양지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가 온 나라 인민의 실생활로 될 새로운 승리의 래일을 그려주며 인민의 랑만넘친 웃음소리를 끝없이 울려갈것이다.

본사기자 최 광 혁

단상

탉알이 익는 시간

삶은 탉알을 맛본 사람들은 많아도 탉알이 익는 시간을 재여본 사람은 그리 많지 못할것이다.

나도 그랬다.

어릴적 부모님들을 위해 고사리같은 손으로 삶은 탉알을 손에 쥘적에 자기가 만든 신기한 《료리》를 호뭇하게 바라보며 기뻐한 그런 때는 있었지만 탉알을 삶는데 드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재여본 적은 기억나지 않는다.

얼마전 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몸소 탉알이 익는 시간까지 재여가시면서 인민들에게 훌륭한 온천문화휴양지를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바쁘신 시간까지 바쳐가신 위대한 헌신의 화폭들을 보면서 그이께서 지니신 인민사랑의 숭고한 세계에 대해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다.

양덕의 산간벽지가 지금처럼 황홀한 온천문화휴양지로 웅장하게 변모되기까지에는 인민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끝없는 사랑의 세계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

물맑고 공기좋은 양덕군의 온천지구를 련이어 밟아보시며 온정리일대를 온천휴양의 적지, 명당으로 정해주시고 몸소 온천의 물온도와 성분을 알아보시며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할 종합적인 온천문화휴양지를 훌륭하게 개발할데 대한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취임없이 훌러나오는 용출구에 서시여 손수 온천물에 손도 잠그어보시고 뜨거운 온천물을 리용하여 인민들이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낼수 있도록 특색있는 휴식장도 지어주도록 하신 끝없는 사랑의 세계!

그이께서는 뜨거운 온천물이 솟구쳐오르는 용출구에서 탉알을 삶아보도록 하시고 자신의 손목시계를 보시며 몸소 탉알이 익는 시간까지 측정해보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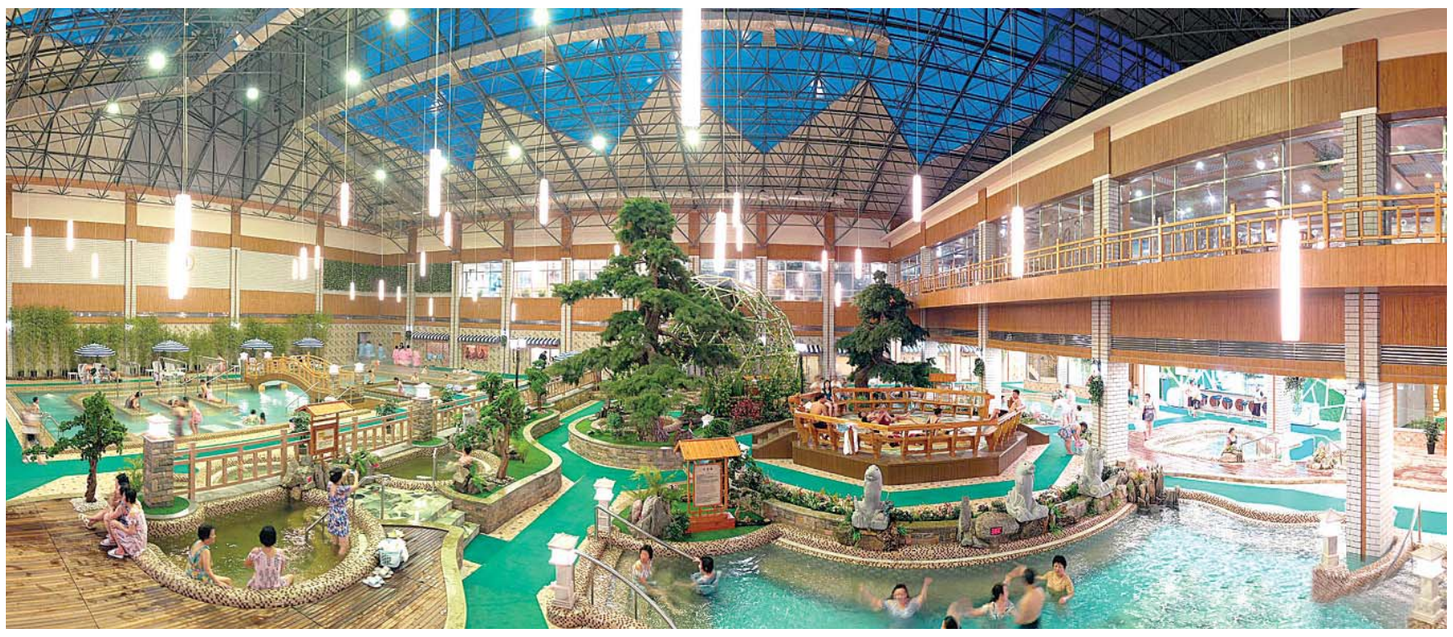
이렇게 되여 특색있는 온천문화휴양지에는 탉알삶는 터까지 꾸려져 인민들이 온천욕을 즐기면서 온천물에 탉알을 삶아먹을수 있게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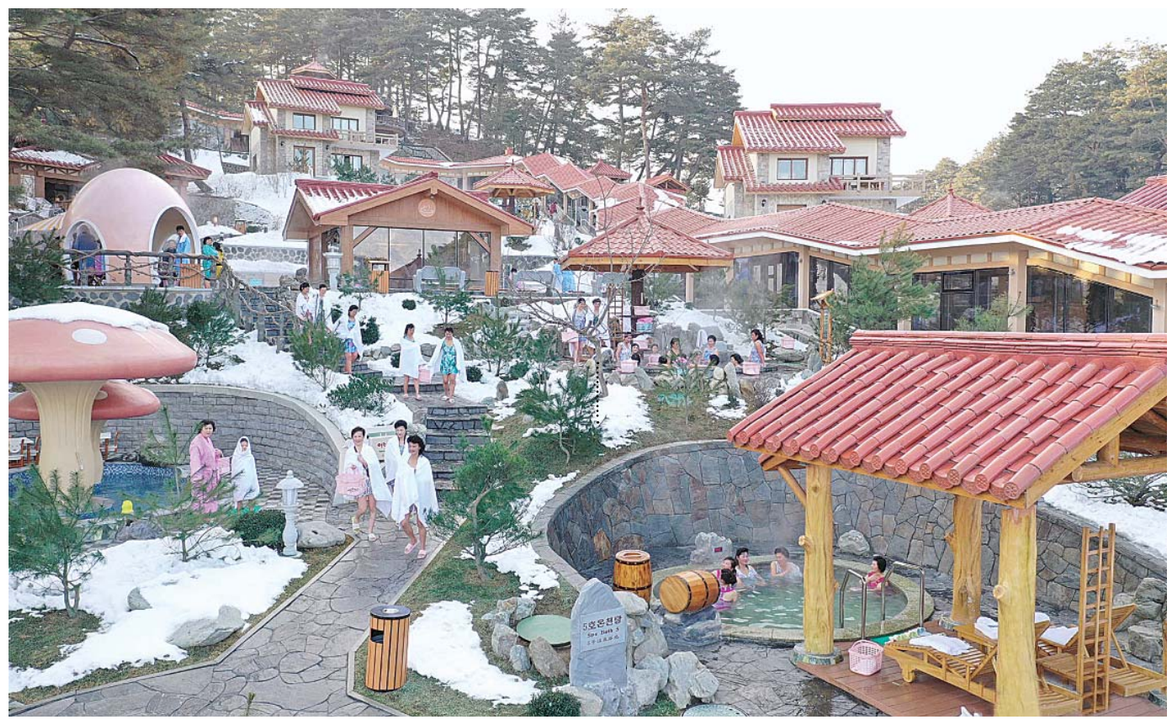
인민의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위해 천금같은 혁명령도의 시간까지 바치시며 탉알이 익는 시간까지 측정해보신 원수님.

탉알이 익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허나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해 헌신의 자욱을 이어가시는 어버이의 끝없는 현지지도 길우에 사랑으로 수놓아진 잊지 못할 시간이였다.

강 류 성





긴장격화를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군사적망동

새해에 들어와서도 남조선군부의 반공화국대결본색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있다.

그들은 여러 기회에 동족을 걸고들며 《합의서위반》과 《도발》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있다.

이것은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소리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군부세력이 앞에서는 《대화》와 《신뢰》에 대해 떠들면서도 돌아앉아서는 동족을 겨냥한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에 계속 매여달림으로써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키고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란폭하게 유린해왔다는것은 이미 폭로된 사실이다.

지난해에만도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은 외세와 함께 조선반도유사시에 대비한 련합공중탐색구조훈련과 련합편대군 종합훈련, 《키 리졸브》,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대신한 《동맹 19-1》과 《련합지휘소훈련》 등 크고작은 전쟁연습들을 련이어 감행하였다.

또한 《훈련은 발표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 《련합훈련을 과도하게 홍보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여론의 눈길을 피해가며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은폐된 형태의 합동군사연습들도 부단히 벌려놓았다.

지난해에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이 외세와 야합하여 벌린 련합훈련이 100차례이상에 달하였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남조선군부는 《2019년 국방부업무계획》과 《2019-2023 국방중기계획》을 비롯한 무력증강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미국으로부터 첨단무기체계들을 끌어들이는 한편 잠수함성능개량과 경항공모함건조, 각종 구축함과 전투기재를 적극 개발하는 등 북침전쟁준비에 광란적으로 매달렸다.

남조선군부가 《현존하는 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황당한 주장밑에 지난해 국방예산을 력대 최대였던 2018년보다 8.2% 늘인것만 보아도 이를 잘 알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군부세력은 《도발》과 《위반》을 운운하며 제편에서 동족을 걸고들다 못해 《군사대비태세》와 《단호하고 주저없는 대응》을 부르짖으며 대결광기를 부리고있다.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동족을 적대시하면서 군사적 대결소동에 계속 매달리려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무분별한 망동은 내외의 큰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새해벽두부터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동족을 겨냥한 군사적대결소동들은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예측할수 없는 지경에로 몰아가고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높아가는 파병반대의 목소리

남조선에서 호르무즈해협파병을 반대하는 기운이 날로 높아가고있다고 한다.

얼마전 남조선외교부 장관이 《청해》부대의 호르무즈해협파병여부와 관련한 《국회》질문에서 그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사실, 외교부 당국자가 기자들에게 《청해》부대파견목적에 《국민안전보호》도 포함되여있다고 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은 현 당국이 《상선보호를 명분으로 이미 소말리아의 아덴만에 파견한 〈청해〉부대의 작전반경을 호르무즈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파병움직임을 보이고있다고 평하고있다.

언제 전쟁의 불집이 터질지 모를 첨예한 열점지역으로 되고있는 호르무즈해협에 남조선의 청장년들을 내몰려는 당국의 행위는 남조선 각계층의 강한 우려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참여련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한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은 《동맹국이라고 파병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다.》, 《군사행동에 동참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고 하면서 호르무즈해협파병을 강력히 반대해나서고있다.

반면에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패당만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사대매국적정체를 여실히 드러내놓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들은 호르무즈해협파병여부가 또 하나의 정치적쟁점으로 떠오르고있다, 유독 《자한당》과 같은 보수세력만이 상전의 환심을 사기 위해 파병을 주장하고있다, 만일 현 당국이 호르무즈해협파병을 결정할 경우 각계의 더 큰 항의와 규탄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하고있다.

김현일

단평

유치한 발상

《자한당》은 왜 불에 덴 소처럼 날뛰는가

요즘 남조선에서 《자한당》의 위성정당창당놀음을 두고 비난과 조소가 그칠새 없다.

《민의를 외곡하려는 꼼수정치를 중단하라.》, 《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부끄러움을 알라.》, 《탈법정당 자유한국당은 더이상 존재리유가 없다.》…

이쯤됐으면 늦게나마 수치를 느끼고 잠자코 있는것이 상책일것이다.

하지만 올데갈데 없는 《자한당》이다.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불복소송》,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니 생떼를 부리는가 하면 《비례정당이름후보는 아직도 많다.》, 《앞뒤 혹은 중간에다가 무엇을 끼워넣을지는 무궁무진하다.》고 넉살을 떨며 안하무인격으로 놀아대고있다.

구린 입에서 바른소리가 나올리 만무하지만 《비례자유한국당》에 《사형선고》 내린 이 마당에 와서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위성정당을 내오겠다고 악을 써대고있으니 참으로 낯뜨겁기 그지없다.

위성정당이라는것이 남조선 《국회》에서 《준련동형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된데 대해 앙심을 품은 《자한당》패들이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의석을 더 따낼 목적으로 고안해낸것이라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저들스스로가 지역구후보에 대한 투표는 《자유한국당》이 내세운 후보에게 하고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투표는 《비례자유한국당》에 하도록 지지층을 유도한 후 《자유한국당》과 《비례자유한국당》을 합쳐 제1당의 지위를 차지하자는데 있다는것을 숨기지 않았다.

남조선 각계층이 《준련동형비례대표제》를 악용하여 위성정당을 내오려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반개혁정당》, 《기득권정당》이라고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처럼 그 발상자체가 유치하고 불순할뿐아니라 민의에 심히 저촉되는 위성정당을 기를 쓰고 내오겠다고 고집하는 《자한당》이야말로 천하의 둘도 없는 불한당집단, 한시바삐 력사의 뒤길로 사라져야 할 적폐의 무리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이미 《자한당》에 침을 밸은지 오래다.

《자한당》이 위성정당을 내오든말든 차례질것은 민심의 준엄한 심판뿐이다.

김영범

최근 남조선에서 검찰개편인사를 두고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큰 일이나 난것처럼 복닥소동을 피워대고있다고 한다.

검찰인사개편이 발표되자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긴급의원총회와 규탄대회 같은것을 련일 벌려놓고 《좌파독재의 인사폭거》, 《검찰대학살》로 걸고들며 법무부 장관을 직권람용 및 권리행사방해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으로 마치도 제 살점이 떨어져나간것처럼 아부재기를 치고있다. 이것도 모자라 《자한당》소속 의원 수십여명이 청와대로 몰려가 《검찰들 주눅들지 말라. 한국당이 있다.》, 《총선에서 무도한 좌파독재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하면서 적폐검찰을 비호하는 망동까지 부리였다.

이에 보수언론들도 합세 부정부패만을 일삼던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검찰의 반발을 부추기는 여론을 내돌리고있다고 한다.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과 보수언론들의 이러한 행태는 파멸의 위기에 빠진자들의 단말마적발악에 불과하다.

따지고보면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검찰과 뗄래야 뗄수 없는 한통속이라고 할수 있다.

력대적으로 남조선검찰이 파쇼독재의 사환군, 보수정치의 시녀가 되여 역적패당의 권력형부정부패와 사악한 범죄들을 극구 비호하고 민주개혁세력을 탄압하는데 앞장서왔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동안 검찰을 손아귀에 틀어쥐고 파쇼독재와 온갖 부정부패만을 일삼던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로서는 저들의 손발이였고 방패막이였던 적폐검찰이 무너지고있는데 대해 제일 큰 공포와 불안을 느낄수밖에 없다. 이로부터 지금 이자들은 어떻게 하나 적폐검찰세력이 몰락되는것을 막아 저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과거의 파쇼암흑시대를 되살려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그대로 사회적진보와 민주개혁을 바라는 남조선민심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악랄한 모독이다.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적폐검찰에 대한 민심의 심판은 내려졌고 그것은 막을수 없는 흐름으로 되였다. 자기 시대를 다 산 폐물들이 민심의 준엄한 징벌을 피해보려고 발버둥질할수록 파멸의 진펄속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될뿐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검찰개혁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전호에서 계속)

추악한 오명으로 얼룩진 《자한당》의 1년행적

니전투구당

망하는 집안에 싸움이 잦다고 《자한당》내에서는 지난 한해 어느 하루도 계파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다.

특히 지난해 2월에 진행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근혜의 치마폭에 엿가락처럼 녹아붙어 온갖 만행을 저질러온 황교안이 당대표자리를 노리고 《자한당》에 코를 들이밀면서부터 당내 계파갈등의 폭풍은 더욱 세차게 몰아쳤다.

개는 싸움이 인사라는 말을 립증이나 하듯 황교안이 《자한당》에 입당하자 친박계는 소리치며 환영한 반면에 비박계는 《계파분렬의 서곡이 될수 있다.》, 《황교안이 당대표로 되면 당은 망한다.》고 하면서 첫날부터 아웅다웅하였다.

갈수록 험산이라고 황교안이 당대표자리를 차지한 이후부터 《자한당》이 《혁신》과 《통합》을 통한 《새 정치》로 중도층을 끌어당기겠다고 입에 꿀발린 소리를 늘어놓았지만 《인재영입》과 《보수대통합》을 놓고 당권파와 비당권파, 친박근혜파와 비박근혜파사이의 대결은 날이 갈수록 더욱 격화되였다.

정치풋내기인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당안에 신선한 피를 수혈하겠다.》고 하면서 《인재영입대상》발표놀음을 벌렸지만 여기에 이름이 오른자들이 하나같이 박근혜탄핵을 반대한 극우분자, 적폐청산에 걸려들었던 부정부패분자들인것으로 하여 남조선 각계층은 물론 비박근혜파로부터 《감동없는 인재영입》, 《인재영입실패》라는 비평을 받았다.

여기에다 기성세력들이 다음기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가능성이 높은 경상도지역에 출마하겠다고 저저마다 나서자 신진의원들이 《당혁신에 도전하는 행동》, 《낡은 세력은 뒤로 물러나라.》고 강하게 반발해나섰는가 하면 《보수대통합》문제를 둘러싸고도 황교안파, 친박근혜파, 김무성파, 홍준표파 등 각 계파들이 저들의 리해관계만을 앞세우며 옥신각신함으로써 당이 말그대로 제개비네집안으로 되고말았다.

한편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동상이몽하면서 권력암투를 벌리다가 결국 라경원이 황교안의 권모술수에 의해 밀려났다.

남조선의 정치전문가들은 《자한당》내에서 《쇄신》파 《중진용퇴》요구가 비발치는 가운데 단식으로 주도권을 잡은 황교안이 친박계를 돌격대로 삼아 올해 4월 《총선》에서 《현역의원》의 대폭 《물갈이》를 시도하고있으나 비황계인물이 원내대표로 선출됨으로써 《자한당》내의 물고뜯고 피터지는 싸움이 더욱 치렬해질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우두머리들은 우두머리들대로 당권을 위해 보이지 않는 결투를 벌리고 졸개들은 《국회》의원자리나 자파세력확장을 위해 매일같이 서로 으르렁거리며 이발을 드러내놓는 개무리-《자한당》은 민심이 평한 그대로 《니전투구》당이다.

골목깡패당

《자한당》은 비정상적이고 도를 넘는 막말, 깡패적인 기질을 타고난 골목깡패들의 무리이다.

당대표부터가 《유신》독재자의 5.16군사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떠들며 민주세력들을 감옥에 처넣는데 앞장선 악명높은 《공안》검사출신이다보니 수하졸개들도 모두 하는짓이란 막말과 독설, 깡패질뿐이다.

입이 걸기가 사복개천같은 《자한당》것들은 지난해 4월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을 향해 《자식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쳐먹고 찜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 《인젠 징글징글하다.》는 막말을 쏟아내여 민심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냈다.

막말과 독설을 쏟아내는 데서는 입심이 센 사내들에 조금도 짝지지 않을 포달스러운 전 원내대표 라경원은 지난해 5월 제4차 《장외집회》에서 현 당국자를 비난하면서 녀성으로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탈창》이라는 거칠기 짝이 없고 색정기가 번지르르한 발언을 하여 사람들을 아연케 했다.

《자한당》의 깡패기질은 결코 막말로 그치지 않았다.

《자한당》것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안》, 《검경수사권조정법안》, 《공직선거법개정안》의 신속처리안건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회의실을 점거, 봉쇄하고 의원들을 감금하는 폭력행위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이들은 이리저리 떼지어 몰켜다니며 《국회》복도에 성별에 관계없이 함께 드러누워 란동을 부리고 오물을 버려놓았는가 하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입에서 더러운 《구정물》을 마구 쏟아내 정치인은 고사하고 인간으로서의 초보적인 문화도덕수준도 갖추지 못한 패륜아, 정신적기형아들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정치인이라는 초보적인 체모도 갖추지 못하여 민심의 뭇매를 맞은 《자한당》것들은 현 당국자가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을 때에는 《강남좌파》, 《매장시켜야 할 대상 1호》로 매도하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추진》을 떠들어대며 《태극기모독단》폭력배들이 벌려놓은 반 《정부》집회에 합류하여 내란을 선동하였다.

한해가 저물어가던 지난해 12월에는 《태극기》부대를 비롯한 극우보수세력들을 선동하여 《국회》앞에서 《〈공수처설치법〉, 〈선거법〉날치기저지규탄대회》라는것을 벌려놓고 《국회청사점거》에로 내몰면서 《국회》의원들을 폭행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침을 밸고 욕질과 성추행 등의 폭력행위를 감행함으로써 남조선인민들로부터 《정치폭도》, 《정치깡패무리》라는 비난규탄을 받았다.

민생법안들의 처리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오로지 저들의 당리당략, 재집권야망실현에만 눈이 멀어 돌아가는 《자한당》이야말로 고상한 정치인들이 모인 정당이 아닌 《깡패도당》임이 분명하다.

민생외면당

지금 남조선에서는 리명박근혜시기 엉망으로 망쳐놓은 경제때문에 민생이 점점 더 도탄에 빠져들고있다.

부동산가격과 물가상승 등으로 남조선인민들이 생활고에 허덕이고 일자리가 줄어들어 실업대란이 일고있지만 《자한당》것들은 경제파탄, 민생파탄을 끝없이 지속시켜야 민심이 당국과 여당에 등을 돌려대여 빼앗긴 권력을 되찾는데 유리하다는 타산만 앞세우면서 지난 한해동안 민생관련법안들의 《국회》통과를 악랄하게 가로막아 경제위기를 더욱더 격화시켰다.

《자한당》것들은 지난해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안》, 《검경수사권조정법안》과 《련동형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제개혁안》들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자 《국회》를 란장판으로 만들고 《임대차보호법》과 《류통산업발전법》, 《유치원3법》, 《민식이법》(도로교통법개정안)을 비롯한 민생관련법안들을 인질로 삼아 신속처리안건을 폐기하라고 여당을 공격해댔다.

지난해 5월 남조선강원도의 산불피해현장에서 《산불화재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일상복귀》를 주제로 최고위원회의를 벌려놓고는 오히려 산불피해대책을 호소하는 주민들을 회의실에서 쫓아낸것이 바로 《민생》을 위한다는 《자한당》망나니들이다. 지난해 6월에도 《자한당》것들은 당국과 여당이 당면한 경제악화를 막는데 필요한 6조 7 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하는데 대해서도 《국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려고 현금을 주는 도덕적해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추가경정예산》이라고 떠들면서 온갖 비렬한 수법을 다 동원하여 《국회》통과를 가로막아나섬으로써 4월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이 무려 99일이 지난 8월초에야 간신히 《국회》에서 통과되여 경제위기대처에 아무런 효력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국회》에 산더미처럼 쌓인 민생관련법안들을 외면하고 걸핏하면 《국회》를 뛰쳐나가 《장외집회》와 맞불집회, 출퇴근시위와 이어달리기식 삭발, 1인단식 등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해괴망측한 광대극을 연출하는것도 모자라 초강력태풍이 민생을 덮치는 다급한 정황속에서도 어중이떠중이들을 끌어내여 우파 《초불시위》까지 벌려댄 《자한당》의 광태는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역적무리들의 정체를 낱낱이 고발하고있다.

지난해 남조선 《국회》에 《청년법》을 비롯한 200여개의 민생관련법안이 상정되였으나 《자한당》의 방해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불과 16개밖에 안된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자한당》이야말로 민심을 외면하고 오직 권력쟁탈과 치부에만 환장해있는 정치협잡군무리, 정치판에서 반드시 도려내버려야 할 악성종양임을 똑똑히 알수 있다.

친미사대당

친미사대는 《자한당》의 천부적기질이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친미로 생겨나고 친미로 독재시대를 연 《자한당》은 민심의 버림을 받고 권력의 자리에서 밀려난 오늘까지도 친미사대에 환장이 되여 날뛰고있다.

지난해 남조선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파기되기 바쁘게 미국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자 《자한당》지도부것들은 미국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하고있다고 아부재기를 치면서 미국과의 《동맹》에 균렬을 내는 《파괴행위》, 미국이 매우 불쾌하게 여기는 《협정파기》는 《안보자해소동》이라고 악청을 돋구었다.

미군기지를 조기반환받기 위한 현 당국의 결정을 두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파기결정이후 미국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한 항의메쎄지이다.》, 《지지률결집을 위해 〈자주국방〉안보정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있다.》고 공격해나섰다.

친미사대에 명줄을 건 반역의 무리들은 보수세력들과 서울에서 《한미보수련합대회》라는 광대극을 벌려놓고 현 당국의 《친북정책으로 〈한미동맹〉이 위태로운 상황에 빠졌다.》, 《〈한국〉은 공개적으로 자체핵무장을 하여 북과 1대 1로 핵폐기협상을 해나가야 한다.》, 《〈한〉미일이 새로운 〈안보협약〉을 강화하여 북을 견제해야 한다.》고 요란스레 떠들어댔다.

미국이 제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을 2배로 증액할것을 강박하자 《자한당》것들은 인민들의 분노에는 아랑곳없이 《〈방위비분담금〉은 돈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을 유지발전시키는 문제》, 《〈한〉미사이의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목에 피대를 돋구면서 친미사대에 명줄을 건 구접스러운 자화상을 그대로 드러내보였다.

이런 친미사대매국노들이 남조선에 욱실거리기에 미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비롯한 여러 협상들에서 이미전에 체결한 《방위비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US$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를 짜내려고 현 당국을 더욱 압박해대고있는것이다.

온 겨레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바라고 있는 오늘 《방위비분담금》의 증액은 곧 대결과 전쟁을 부르는 《침략비》, 《전쟁비》의 증액으로서 절대로 수수방관할수 없는 초미의 문제이다.

혹심한 경제위기와 민생고에 시달리는 남조선인민들의 처지는 안중에도 없이 현 당국의 무모한 벼랑끝전술로 《한미동맹》이 수렁에 빠졌다고 앙탈을 부리면서 《본질은 〈한미동맹〉의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번영》이라는 얼빠진 궤변으로 미국을 할애비처럼 섬겨바치고있는 《자한당》것들이야말로 하루빨리 쓸어버려야 할 사대매국노무리들이다.

토착왜구당

일찌기 친일과 독재로 연명하며 분렬의 찌꺼기로 살쪄온 적폐세력이 다름아닌 《자한당》이다.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버리지 않고 령토강탈야망과 력사외곡책동에 매달리는 일본에 재침의 멍석을 깔아주고 아베정부의 수석대변인노릇을 하는 《자한당》의 친일매국적행위는 일본을 더욱 오만방자해지도록 부추겨대고있다.

지난해 6월 한 친일파를 찾아가 《6.25전쟁영웅》으로 추켜세워 여론의 뭇매를 맞은 《자한당》것들은 《국회》에서 뻐젓이 《반민족특별조사위원회》가 국민을 분렬시켰다는 친일비호적인 언사로 남조선인민들의 분노를 야기시켰다.

일본 아베정부의 정치보복과 경제침략을 《우리 일본의 일》로 찬미하고 각지에서 전개되는 일본제품불매운동, 일본려행중지운동, 아베규탄투쟁을 《철부지들의 감성팔이》로 모독하는 쓸개빠진 언동도 서슴지 않았고 일본정부를 《우리 정부》라고 부르면서 반일감정을 부추기는것은 도움이 안되는 일이라는 당치않은 친일망언들을 마구 토해냈다. 황교안, 라경원, 홍준표, 김무성, 김성태를 비롯한 역적당것들은 《일본에 대한 강경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이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당국과 여당이 일제시대도 아닌데 반일죽창투쟁을 선동하고있다.》고 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마땅히 친미, 친일을 해야지 친북, 친공을 하면 안된다고 얼토당토않은 망발까지 해대며 역스럽게 놀아댔다.

남조선 각계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파기결정을 두고 《8.15후 최초의 자주적인 외교결정》, 《아베의 경제침략에 맞선 정당한 행사》, 《초불시민이 이룩한 승리》로 적극 환영하고있을 때에도 《자한당》패거리들만은 《우려스러운 결정》, 《협정파기는 최악의 결정》이라고 악을 써댔으며 지난해 10월에는 그 무슨 《민평론》이라는데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파기결정을 철회하고 《한미일안보협력》을 강화할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들어댔다.

일본의 막무가내 수출규제조치를 두고 오히려 현 《정권》비판에 열을 올리면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것을 막기 위해 필사즉생의 각오로 림하겠다.》며 《갑질단식》, 《황제단식》이라는 역겨운 희비극을 연출하여 남조선인민들로부터 《친일정당》, 《친일정치인》이라는 오명을 선사받은것도 《자한당》무리들이다.

개주둥이에서 상아가 나올리 만무하지만 민족의 넋마저 깡그리 상실한 수작질로 천년숙적을 비호하는 《자한당》은 권력야욕을 위해서라면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송두리채 팔아먹는 현대판 《을사오적》의 무리, 《토착왜구당》이다.

* *

만인의 손가락질을 받으면 병에 걸리지 않아도 급사한다는 말이 있다.

지리멸렬의 위기에서 벗어나 보수부활의 개꿈을 실현해보려고 젖먹던 힘까지 다하며 최후발악한 《자한당》이 남조선인민들로부터 하사받은 추악하고 더러운 《오명》들은 파산과 몰락을 예고하는 민심의 엄정한 선고장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겨레의 념원과 새 정치, 새 생활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드세찬 격류에 역행하여 지난 한해동안 남조선땅을 벌등지 쑤셔놓은듯 소란케 하면서 권력쟁탈에만 몰두해온 반역의 무리-《자한당》은 반드시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야 말것이다.

주체109(2020)년 1월 6일
《우리민족끼리》편집국

진군의 기발은 더 거세하게 휘날린다

공화국의 거창하고도 줄기찬 전진에 질겁한 적대세력들이 지금 최후발악을 하고있다.

공화국이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것으로 하여 더이상 힘으로 압살할수 없게 된 적대세력들은 공격의 예봉을 경제분야에 돌리고 가혹한 제재봉쇄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지난해에만도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의 생존과 발전을 가로막는 전대미문의 제재와 압박봉쇄를 가하였다.

적대세력들이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는 살인적인 제재봉쇄의 궁극적목표는 인민들이 생활난을 겪게 하여 신념을 약화시키고 나아가서 공화국을 내부로부터 허물자는데 있다.

적대세력들이 공화국이 주저앉아 무너지기만을 학수고대하고있지만 그들이 바라는것과는 정반대의 현실이 펼쳐지고있다.

적대세력들이 제재압박의 도수를 높이면 높일수록 공화국은 엄혹한 난국을 과감하게 뚫고헤치며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해가고있다.

얼마전 순천린비료공장건설현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하나를 창조하고 건설해도 오직 우리 식으로, 우리의 힘에 의거하여라는 당의 자력부강, 자력번영사상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나라의 화학공업발전에서 새로운 분야의 개척과도 맞먹는 아름차고 어려운 대상건설과제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해결해가고있는 우리의 믿음직한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의 혁명적투쟁본때를 접하니 마음이 더더욱 든든해진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바람이 불어야 기발이 날리는것은 당연한 리치이라고, 적대세력들이 역풍을 불어오면 올수록 우리의 붉은기는 구김없이 더더욱 거세차게 휘날릴것이라고 하시면서 아무리 정세가 엄혹하고 가는 앞길에 난관이 막아나서도 우리 위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자기의 힘을 믿고 부단히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 적극성을 발휘해나간다면 우리의 리상과 포부는 반드시 우리의 손에 의하여 실현될것이라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적대세력들이 역풍을 불어오면 올수록 우리의 붉은기는 구김없이 더더욱 거세차게 휘날릴것이다!

참으로 전진을 가로막는 시련과 역경이 크면 클수록 더더욱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떨쳐일어나 세기적인 변혁과 거창한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조선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창조본때가 과연 어떤것인가에 대한 힘있는 선언인것이다.

돌이켜보면 70여년에 결치는 공화국의 자랑찬 력사는 부닥치는 온갖 시련과 난관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맞받아뚫고 세상을 경탄시키는 놀라운 변혁과 기적을 창조하여온 빛나는 승리의 력사로 아로새겨져있다.

전후 빈터우에서 천리마를 타고 내달려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완성하고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제국주의련합세력이 떼지어 달려들던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붉은기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만년토대를 억척으로 다져놓은 공화국이다.

최근년간 공화국이 봉착한 도전은 남들 같으면 하루도 지탱하지 못하고 물러앉을 혹독하고도 위험천만한 격난이였다.

하지만 그 어떤 난관도 공고한 전일체를 이루고 굴함없이 나아가는 공화국의 돌진을 멈춰세울수도 지체시킬수도 없었다. 오히려 국가의 힘, 국방력강화에서 거대한 성과들을 끊임없이 비축하였다.

나라의 군사기술적강세를 불가역적인것으로 만들고 국력의 상승을 더없이 촉진시킬, 적대세력들에게 심대하고도 혹심한 불안과 공포의 타격을 안겨줄 첨단국방과학의 눈부신 비약, 농사에서 최고수확년도를 돌파하는 전례없는 대풍마련, 삼지연시꾸리기 2단계 공사결속,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 훌륭히 완공…

면밀히 추진되고있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순천린비료공장건설, 어랑천발전소와 단천발전소건설을 비롯한 대상건설들, 현저한 장성추세를 보인 금속, 석탄, 건재공업과 경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거의 모든 부문…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천만의 대오가 한사람같이 궐기해 견인불발의 증산운동, 창조운동을 과감하게 벌려온 필연적결과이다.

공화국을 최대의 압박과 봉쇄로 고사시키려는 적대세력들의 본심이 명명백백해진 이상 정면돌파전을 벌려 이제껏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고야말겠다는것이 공화국의 민심이다.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기어이 자력부강, 자력번영하여 나라의 존엄을 지키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전대미문의 준엄한 난국을 정면돌파해나갈 비상한 각오로 충만된 온 나라 인민의 강렬한 의지가 1월의 강산을 뜨겁게 달구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 정신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인민경제 주요공업부문들에서 겹쌓인 난관을 뚫고 실제적인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총돌격전에 진입하였다.

올해를 금속공업부문이 들고일어나는 해로 만들 각오를 안고 새해 첫날부터 황해제철련합기업소,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조건은 불리하지만 과학기술의 힘으로 난관을 뚫고나가며 증산돌격전을 과감히 벌리고있다.

화학공업부문이 용을 쓰며 전진하고있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와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추운 날씨조건에서 공정간 련속성을 담보할수 있는 대책들을 면밀히 세우고 주체비료, 주체비날론생산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인민경제의 생명선을 지켜선 전력공업부문의 생산자들이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끌어올릴 불같은 열의밑에 새해 첫날부터 증산투쟁을 맹렬히 벌리고있을 때 석탄공업부문에서 굴진에 힘을 넣고 예비탄밭을 충분히 마련해가면서 석탄생산을 줄기차게 밀고나가고있다.

기계공업, 건재공업, 철도운수, 경공업부문에서도 전진과 비약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봉쇄책동으로 말미암아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렵지만 과학과 교육, 보건부문에서 막아나서는 난관을 정면돌파하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적대세력들의 단말마적발악은 전진도상에 시련과 난관을 조성할수는 있어도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저력, 발전잠재력을 절대로 말살할수 없다.

유리한 형세도, 최후의 승리도 역경을 맞받아 뚫고가는 인민에게 있다.

공화국은 앞날에 대한 확신에 넘쳐 과감한 정면돌파전으로 적대세력들의 제재압살책동을 무력화시키며 새해 진군의 보폭을 더 크게, 더 힘차게 내짚고있다.

역풍이 불수록 더 세차게 나붓기는 붉은기의 펄럭임소리, 그것은 절세위인의 령도따라 자력갱생의 힘으로 준엄한 난국을 정면돌파해나가는 조선의 장엄한 대진군의 힘찬 발걸음소리이다.

그것은 또한 가장 혹독한 도전과 위험천만한 격난을 맞받아 헤치며 세상을 경탄케 하는 눈부신 변혁과 기적적성과들을 련속다발적으로 이룩해나가는 동방의 조선에서 울리는 승리의 만세소리이다.

본사기자 홍범식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첨단돌파의 열풍을 일으키며

2009년 8월 11일부 《로동신문》을 펼쳐든 사람들은 신문의 2면에 실린 정론 《첨단을 돌파하라》에 눈길을 모았다.

정론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자신께서는 《련하기계》를 사랑하신다는것과 《련하기계》는 자신의 《구면친구》가 되였다는것, 《련하기계》는 선군시대 기계공업의 훌륭한 상징이라고 하신 교시가 정중히 인용되여있었고 공화국이 《련하기계》를 통하여 CNC기술의 패권을 쥐였다는 내용이 담겨져있었다.

련하기계공장은 어떤 공장인가, CNC기술이란 무엇인가. …

당시까지만 해도 련하기계공장에 대하여, CNC기술에 대하여 잘 모르고있던 사람들속에서는 이런 말들이 오갔다. 그러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고심어린 헌신에 의하여 공화국이 CNC기술의 패권을 쥘수 있었다는 사실에 경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콤퓨터에 의한 수자조종이라는 영어표기의 략어인 CNC라는 말이 세상에 나온것은 1970년대 후반기이다. CNC기술의 우월성은 높은 정밀도로 그 어떤 복잡한 형태의 기계제품도 쉽게 가공할뿐아니라 생산성이 재래식기계에 비하여 수십배이상이라는데 있다.

공화국에서는 1980년대초에 벌써 발전된 몇개 나라에서만 만들던 CNC의 일정한 조건을 갖춘 공작기계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시련의 시기에도 과학기술의 발전이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되고있는 현시대의 특징을 환히 꿰뚫어보시고 CNC기술의 명맥을 틀어쥐기 위한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였다.

주체84(1995)년 4월말 어느 한 공장을 찾으시였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곳에서 CNC 줄방전가공반을 보게 되시였다. 거기에는 《련하기계》라는 명칭이 붙어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게 CNC가 아닌가고 하시면서 더없이 반가와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련하기계공장(당시) 일군들의 사업을 료해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였으며 공장에 첨단급의 CNC설비들을 개발하고 그것으로 나라의 중요한 부문을 현대화할데 대한 과업을 맡겨주시였다.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공장들을 현대화하는 사업은 전후 우리가 공장을 일떠세우는 정신으로 완전히 새롭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생산공정에 CNC를 도입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해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CNC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주체91(2002)년 7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CNC기계를 갖추어놓은 어느 한 공장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다른 나라의 CNC기계와 《련하기계》를 대비적으로 보시였다. 《련하기계》가 별로 빠진데 없이 훌륭하였다.

보시오. CNC기계도입이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우리는 결정적으로 CNC화를 해야 하오.

이것은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를 새시대의 지향에 맞게 발전시킬수 있는 전략적방도요. …

그러시고는 물론 아직까지는 CNC화의 초기단계라고 말할수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온 나라의 CNC화를 여러 단계에 걸쳐 발전시킴으로써 기계공업전반을 현대적으로 개조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것도 우리 나라에서 개발하고 생산하는 우리의 CNC기계로 말입니다라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그로부터 며칠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희천공작기계공장(당시)을 찾아주시였다.

그이께서 찾아오시였을 때 공장은 CNC화의 열풍으로 약동하고있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일군들과 로동계급을 CNC화실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작업중에 있는 낡은 기대들을 모두 보아주시고 이제는 기계공장들을 현대화, 과학화할 때가 되였다고, 기계공장들을 현대화하여 기계공업이 앞서나가야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을 발전시켜나갈수 있다고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CNC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데 맞게 이 사업을 더 높은 단계에서 진행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주체98(2009)년 11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CNC와 관련한 추억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노래 《돌파하라 최첨단을》을 들을 때면 눈물이 나는것을 걷잡을수 없다고, 무심히 들을수 없는 참으로 감동적인 노래이라고, 우리 식의 CNC기술에 대한 긍지와 강렬한 지향을 담고있는 그 노래는 잊을수 없는 추억을 불러온다고 교시하시였다.

돌이켜보면 고난의 행군시기는 그 누구에게나 어려웠던 시련의 시기였다. 그때는 정말 한푼의 자금이 귀하였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앞을 내다보시고 있는 자금을 모두 중공업공장들의 현대화에 쓰도록 하시였다. 고난의 행군을 하는 인민들이 고생하는것을 보실 때마다 누구보다 마음이 아프시였지만 부강번영할 공화국의 미래를 위하여 있는 자금을 다 보내주시였다.

내 나라, 내 조국의 힘을 키워 공화국을 세계에 당당히 내세우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의지에 의하여 주체공업의 위력, 온 나라의 CNC화를 세상사람들에게 당당히 보여줄수 있게 되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구상하시고 정력적으로 실현해오신 온 나라의 CNC화는 이 땅에 지식경제시대를 불러오는 불씨로, 자체의 힘과 기술로 경제강국건설을 추동하는 21세기 산업혁명으로, 조국번영의 무한한 원천으로 되였다.

본사기자 김춘경

즐거운 방학의 나날들에

이번에 공화국의 교육부문에서는 지난 시기처럼 학생들에게 방학기간에 일률적으로 주던 숙제를 없애고 학생 모두가 즐거운 방학기간 자기의 소질과 재능에 따라 과외교육을 마음껏 받을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학생들의 개성과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여 앞으로 누구나 자기의 재능으로 나라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인재로 자라나게 하는데서 매우 효과적인 조치로 되고있다.

이에 맞게 학교들에서는 방학기간에 교실들을 소조실로 전환하고 다양한 소조들을 내옴으로써 학생들이 자체학습과 함께 기술배우기, 예능과 체육, 견학, 참관, 등산 등을 통하여 누구나 자기의 소질과 취미에 따라 재능을 꽃피워가도록 하고있다.

평천구역 봉학소학교에서는 낮은 학년 학생들이 자기가 재능을 어느 분야에서 발휘할수 있는가를 스스로 찾을수 있게 여러 소조활동에 참가해보도록 하고있다.

이전에는 수학, 외국어, 음악, 글짓기, 정보기술, 체육, 그림그리기, 화술소조 등을 운영했지만 지금은 그 소조들에서 파생된 이웃소조들이 대폭 늘어나고있다고 한다. 체육소조만 놓고 보아도 이미 있던 축구, 탁구소조외에 바드민톤, 롱구, 철봉, 뜀줄, 륙상, 조마, 씨름소조 등이 새로 조직되였다.

학생들의 천성적인 소질과 재능에 맞게 다종다양한 소조를 많이 조직한 이곳 학교에서는 여러가지 수단과 수법을 창조하여 소조운영을 보다 활발히 하기 위한 경쟁열풍이 불고있다.

방학기간 많은 학생소년들이 과학기술전당의 어린이꿈관을 찾아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산지식으로 공고히 다져나가고있다.

원산시 상동고급중학교의 미술반 학생들은 방학기간에 올해에 진행될 도산업미술전시회와 전국소묘축전에 출품할 작품들을 한가지이상씩 완성할 계획을 세우고 작품창작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김일성광장과 개선문광장, 인민야외빙상장, 아동공원, 체육공원들,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평양학생소년궁전, 마식령스키장, 룡악산, 중앙동물원…

그 어디나 정서가 다감하고 풍부한 학생들의 웃음무대, 아름다운 꿈과 희망의 나래를 활짝 꽃피워가는 활무대로 되고있다.

방학기간 부모와 함께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 가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학생들도 있다. 이 과정에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미래의 기둥감들로 자라나고있다.

방학기간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하여 온 나라가 한결 밝아지고있다.

본사기자 림광훈

국제의학계의 관심을 모은 연구사

리용진연구사

몇해전 어느 한 나라의 의학잡지에 공화국의 평양의학대학 림상연구소 류마치스연구실에서 이룩한 연구성과자료가 실린적이 있었다.

그후 영국에서는 권위있는 의학자들의 참가하에 자기 나라에서 진행되는 국제학술토론회에 평양의학대학 림상연구소 류마치스연구실 리용진연구사를 초청하였다.

공화국의 평범한 연구사가 국제의학계의 관심을 모은것은 무엇때문인가.

무릎골관절증으로 인한 아픔이 없이 대지를 마음껏 활보하고싶은것은 인생의 로년기에 이른 사람들의 하나같은 소원이다.

점차 나이가 들면서 누구라없이 무릎골관절증에 의한 걷기장애를 호소하게 되는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40살이후부터 일부 사람들속에서 무릎골관절증으로 생활상불편을 느끼게 되고 60살이후부터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리게 된다고 한다.

무릎골관절증은 오늘날 어느 나라에서나 난치성질병으로 되고있다.

그것은 이 병이 조기에는 그 어떤 진단설비에서도 나타나지 않다가 치료대책이 어려운 진행기상태에야 비로소 나타나는 사정과 관련된다.

무릎골관절증이 진행기상태에 이르면 값비싼 여러가지 약을 일상적으로 써야 하는것은 물론 심하면 외과적수술까지 받아야 한다.

이로부터 많은 나라들에서 무릎골관절증을 조기에 적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있다.

평양의학대학 림상연구소 류마치스연구실의 리용진연구사는 사람들이 무릎골관절증에 의한 아픔을 더는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오래동안 꾸준한 연구를 진행하여왔다.

평양의학대학 림상연구소 류마치스연구실의 리명학실장과 리보흠박사를 비롯한 연구집단은 높은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는 탐구의 자욱을 새겨가는 리용진연구사를 도와 자기들의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합쳐나갔다.

그리하여 이들은 그 어떤 진단기구나 실험을 하지 않고 순수 진찰의 방법으로 무릎골관절증을 조기에 진단하는 방법을 확립하였다.

또한 무릎골관절증의 형태별특성에 따르는 섭생을 선택한데 이어 어떤 섭생을 얼마간 지키면 해당 질병의 원인으로 되는 관절연골의 마모를 멈춰세우거나 지연시킬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확증하였다.

국제의학계의 관심을 모은 리용진은 올해 나이가 38살인 새 세대 연구사이다.

지금 리용진연구사는 비약물료법이나 일반적인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무릎골관절증에 대한 치료방법을 완성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본사기자 전명진

온 나라에 차넘치는 대중체육열기

공화국에서 대중체육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체육의 날에는 물론 평시에도 집단달리기, 건강태권도, 대중률동체조와 여러 구기종목 경기들, 유희오락경기들이 열기를 띠고 진행되고있다.

대중체육경기들에서 사람들은 평시에 련마해온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멋있는 장면들을 펼쳐보이군 한다.

온 사회에 체육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지고 어딜 가나 희열과 랑만, 열정과 기백이 차넘치고있다.

배구, 롱구, 정구, 바드민톤 등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하여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더욱 튼튼히 단련하며 건강한 몸으로 로동과 국방에 적극 이바지해가고있다.

지난 12일에도 새해의 첫 체육의 날을 맞아 각지에서 다채로운 체육경기들이 진행되였다.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는 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군들의 집단달리기가 진행되였다.

성, 중앙기관 정무원들은 집단달리기를 통하여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굳은 의지와 함께 단결력과 조직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집단달리기에 이어 대중률동체조와 건강태권도의 박력있는 동작들이 드넓은 광장에 펼쳐졌다.

신의주광장, 강계광장, 함흥광장, 청진경기장 등에서도 집단달리기와 대중률동체조, 건강태권도와 함께 배구, 롱구, 탁구를 비롯한 다채로운 체육경기들이 진행되여 체육의 날 분위기를 한껏 돋구었다.

각지의 공장, 기업소들과 농촌들에서도 다양한 체육 및 유희오락경기들이 진행되여 새해 첫 체육의 날을 특색있고 뜻깊게 장식하였다.

대중체육열기는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고있는 인민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본사기자 김 철

사화

결 의 삼 형 제 (3)

글 박병식, 그림 채대성

바로 그무렵에 박희준은 정희수의 집에 들어섰다. 박희준은 백여간을 차지하는 고루거각들과 산수의 자연미를 담은 깨끗한 정원을 보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숲속에서 한가히 노니는 백학, 현학들의 알연한 울음소리를 들으니 마치 신선세계에 들어온것 같기도 하였다. 오색령롱한 단청집들이 붉은 무지개다리로 이어진 속에 우뚝 솟은 루각이며 그 속에서 오락가락하는 화려한 옷차림의 젊은 녀인들과 수많은 노비들, 여기저기서 마주치는 낯선 옷차림의 중국상인들… 그 모든것은 참으로 상상밖의 희한한 광경이였다.

박희준은 먼저 사랑방으로 안내되였다. 헌데 아침에 이 집 울타리안으로 들어섰건만 어찌된 일인지 주인은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루한 하루해를 보내고 밤이 들어서야 정희수를 만날수 있었다.

박희준은 정희수가 자수성가하여 호상으로 대갑부가 된것을 진심으로 축하하였다.

두사람은 주안상을 앞에 놓고 밤깊도록 지난 회포를 나누었다. 박희준이 자기가 글공부를 마친 후 가운이 점점 기울어져서 지금은 입에 풀칠조차 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진 집형편을 이말저말 끝에 겨우 이야기하니 정희수는 개기름이 번지르르한 얼굴에 벙글거리는 웃음을 담는것이였다.

《형님의 처지가 그리할진대 이 희수가 어찌 모른다 하리까. 형님네 식구라야 백명이 되겠소, 천명이 되겠소. 기껏해야 열명도 못되겠는데 아무러면 내가 형님네 식구들이 굶는것을 보구 아닌보살하겠소.》

《자네 말만 들어도 고맙네. …》

박희준은 어째서인지 더이상 말하고싶지 않았다. 허지만 최악의 궁지에 빠진 지금에 와서 구원의 손길을 마다할수도 없었다.

《내 집을 마련해드릴테이니 두말말고 래일로 형님네 식구들을 이곳으로 모두 옮겨오시오. 그리구 오늘은 로독도 풀겸 우선 편히 쉬시오.》

정희수는 녀종을 불러 박희준을 침실로 안내하게 하고나서 첩의 방으로 건너갔다.

다음날부터 박희준은 정희수의 점방에서 주인을 대신하여 일을 보았다.

요즘 주색에 빠진 정희수는 장사도 귀찮아 박희준에게 저를 대신하여 장사일을 돌보게 하였던것이다. 박희준은 장사속을 알지 못하여 굳이 사양하였으나 정희수의 강요를 차마 뿌리치지 못했다.

그런데 이무렵 정희수는 외국과의 무역은 물론 나라안에서 하는 장사도 다 뜻대로 되지 않아 손해만 보고있었다. 그런데다가 손발처럼 부리던자들마저 정희수가 부화방탕하는 틈을 타서 주인의 눈을 속이며 재물을 사취하고 문건을 위조하였다. 박희준은 계산수자가 제대로 맞지 않고 사방에서 빚독촉이 성화같아 정신을 차릴수 없었다.

국가통제품인 인삼이 개인장사군들의 수중에 집중되게 되자 조정에서는 경술(1850년)년에 개성에서 홍삼 1만 1천여근을 몰수하였다. 그통에 정희수는 자기의 인삼포전에서 거두어들인 홍삼을 남김없이 빼앗겼다. 그런데다가 위법행위를 눈감아달라고 개성류수를 비롯한 여러 벼슬아치들에게 적지 않은 뢰물을 바치여 장사밑천마저 바닥이 다 드러나지 않을수 없었다.

사태가 이쯤되니 중간에서 재물을 롱간질하던자들이 슬금슬금 하나둘 자취를 감추어버려 나중에는 책임추궁할 대상조차 없어졌다.

그래도 정희수는 주색과 투전에서 헤여나지 못했다. 봄철이면 진봉산의 진달래, 자하동골짜기의 시내물, 수창궁서쪽의 련지, 만월대, 법왕사 등을 하루가 멀다하게 계집들을 끼고다니며 꽃놀이, 술놀이를 하고 여름철이면 한량패들과 더불어 활쏘기놀이, 기생놀이를 하였다.

그는 심지어 서울에도 올라가서 노들강변, 북한산 백운대로 계집들을 데리고 싸다니였으며 가을철이면 송도에 가서 기생들과 함께 단풍놀이, 풍악놀이를 하며 세월을 보냈다. 겨울철에는 집안에 사당패들을 끌어들여 풍청거리고 밤은 투전으로 밝혔다. 부화방종하기가 도를 넘어 유물로 보존되여있는 강감찬, 최영의 집 등에도 술과 계집을 달고가서 차일을 치고 풍악을 울리는지라 보는 사람치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집안에는 첩년들의 싸움질이 그칠 날이 없고 장사는 날로 파산몰락하여갔다.

이를 보고 제일 가슴아파하는것은 정희수의 정실부인 류씨였다. 류씨는 정희수가 열여섯살때 고향에서 맞이한 안해로서 옥같은 얼굴에 어진 덕이 넘치고 례절이 깍듯하며 심지가 깊은 녀중군자였다. 류씨는 남편이 시아버지의 유언대로 금부처를 찾아서 생명의 은인인 박희준에게 보벌 대신 제 아버지가 마련한 금을 밑천삼아 장사를 벌리는 행위를 절절히 질책하고 눈물겹게 타이르기도 하였으나 그럴수록 오히려 미움만 살뿐이였다.

류씨의 충고가 사그러들자 정희수앞에는 또 귀찮은 존재가 새로 나타났다. 그는 다름아닌 박희준이였다. 박희준은 정희수의 망동을 두고 친형처럼 아픈 심정으로 충고하였으며 되게 꾸짖기도 하였다. 정희수는 그것이 귀찮았고 증오스러웠다.

그럴 때 정희수의 둘째첩 춘매는 제 몸에 태기가 있게 되니 어떻게 하나 류씨를 내쫓고 제가 정실자리를 차지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있었다. 첩년들중에서 정희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받는것이 춘매였다.

정희수는 저녁마다 춘매의 방에 나들었다.

그러던 어느날 밤이였다. 정희수가 벙글거리며 방문을 열고 들어오자 춘매는 술상을 미리 준비해놓고있다가 금잔에 술을 찰랑찰랑 부어권하며 여느날보다 더 간지럽게 아양을 떨었다.

춘매는 정희수가 술에 얼근히 취하자 바싹 다가앉아 야릇한 웃음을 띠우며 말했다.

《류부인이 암만봐도 요즈음 희준인지 〈봉산댁 서방님〉인지 하고 돌아가는 낌새가 심상치 않은가 보오이다.》

《뭐 희준이하고?》

춘매는 터무니없는 말을 내자니 속이 간지러워서 머리를 정희수의 가슴에 묻으며 슬쩍 말머리를 돌렸다.

《뭐 그걸 가지고 놀랄게 있습니까. 이젠 남의 식구가 다된 사람인걸요. 류씨를 정씨문중에 그냥 두었다가 아무때고 큰 화가 일어날터이니 제 집으로 보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래야 아들을 낳으면 적자로 등록시킬게 아닙니까.》

《쫓아내는거야 뭐 힘들게 있나. 헌데 희준이와 좋아하는건 사실인가?》

《흥, 눈여겨 잘 보시지요.》

《허, 그렇단 말이지. … 이대로 앉아있을 일이 아니로군.》

정희수는 코수염을 쭝긋거리며 혼자말로 중얼거리였다.

연복사종

개성시 남대문에 걸려있는 고려시기의 연복사종은 1346년에 만들어 연복사(고려의 수도 개성에 있던 사찰)에 달았던것인데 1563년 이 사찰이 화재를 입자 남대문으로 옮겨왔다.

종의 크기는 아구리직경 1.9m, 높이 3.12m, 두께 0.23m이며 질량은 약 14t이다.

이 종은 고려시기의 다른 종들과 모양새, 무늬의 내용과 배치에서 서로 다르다.

종의 몸체는 허리에 여러줄의 굵은 선을 돌려 아래우 두 부분을 나누고 거기에 불상과 불경, 여러가지 문양과 종명을 새겨넣었다.

종의 아구리테두리를 매우 률동적인 굴곡으로 처리하고 그 테두리를 따라 물결을 타고 흐르는 모습으로 물고기, 룡을 비롯한 여러가지 짐승을 새긴것은 독특한 느낌을 준다.

종고리의 룡장식은 매우 생동하여 마치 살아 꿈틀거리는듯 하다.

연복사종은 걸면장식들이 세련되고 우아하며 장중할뿐 아니라 그 소리 또한 아름답고 맑아 여운이 100여리까지 퍼졌다고 한다.

이 종은 조선봉건왕조시기 개성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 밤 10시(인경이라고 하여 성문을 닫음)와 새벽 4시(파루라고 하여 성문을 열음)에 울리군 하였다고 한다.

연복사종은 조국해방전쟁시기 남대문이 파괴될때 27개소에 상처를 입었던것을 1954년에 원상대로 복구하였으며 이때 종도 다시 걸게 되였다.

동합금으로 주조된 연복사종은 조선의 5대명종의 하나로서 당시 고려사람들의 금속주조술과 금속공예술의 높은 경지를 잘 보여준다.

본사기자

유모아

어 리 석 은 선 비

옛날 한 선비가 물고기를 먹고싶어 생선 한마리를 사왔는데 가공방법을 몰라 다른 사람에게 물어 물고기 지져먹는 방법을 종이에 적어가지고 왔다.

그가 종이에 적은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고있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나타나 생선을 냉큼 물고 달아났다.

어리석은 선비는 따라가 생선을 빼앗을 대신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이놈아, 물고기 지져먹는 방법은 내가 안다. 어디 보자, 네가 그걸 어떻게 손질해먹는가!》

주 소 : 평 양 통 일 신 보 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 집 위 원 회